



##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 국제 자문회의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방법 모색해야

지난 9월 12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 전략 국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종지구의 바람직한 개발 방향 제시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에디터 | 허유정 · 사진 | 고하진

지난 9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 전략 국제 자문회의'가 열렸다. 재정경제부, 인천도시개발공사, 한국토지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국제공항청사 관계자와 건설사, 부동산 투자·개발·건설 회사 실무진 등 150명 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창석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김창석 회장은 환영사에서 "영종지구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허브 공항인 인천 공항이 입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경제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지만, 그동안 큰 밑그림 없이 개별 사업 지구별로 사업을 시행해왔다. 영종지구의 개발 전략 및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번 국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영사에 이어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투자 부문의 발표를 맡은 사람은 호주의 투자 회사인 Colonial First State사 투자 고문이자, 아시아 시장 분석 담당자인 앤서니 드 프란세스코(Anthony de Francesco). 그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세계적인 추이와 특성, 그리고 이것이 영종지구에서 시사하

는 바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전 세계적으로 FDI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으로 유입되는 FDI의 규모는 매우 적은 편이며, 증가 추세도 미미한 편이다. 외국인 투자를 결정하는 변수는 국가 경제의 규모 및 건전성에서부터 정부의 부패 정도까지 다양하다.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개별 지역에 국한된 미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 시스템 정비, 재정적·제도적 지원 체계 확립, 정치적 상황이나 남북 대치 관계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획 부문에서는 미국 조경·설계 업체인 EDAA의 싱가포르 지사 이사인 스코트 던(Scott Dunn)이 발표를 담당했는데, 그는 주로 공항을 끼고 있는 영종지구의 개발 방향에 대해 말했다. 특히, 영종지구와 여건이 비슷한 해외 사례인 홍콩 책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두바이 공항, 미국의 덴버 공항 등의 개발 사례를 설명하고, "영종지구의 개발은 상업·관광·업무·주거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개발과 정교한 교통 시스템 구축, 환경 친화적인 공간 조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스터플랜 주제 발표에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인 최막중 교수가 영종지구 개발 기본 전략이 담긴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전략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영종지구는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와 수요를 조사해 볼 때 항공 물류 기능, 관광·위락 기능 등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는 스포츠, 레저, 휴양, 컨벤션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 또 개발 전략 면에서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충분한 유보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위락 기능에서는 중국 및 일본의 갬블링 수요를 살려 대형 카지노 시설의 도입 및 테마파크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각각 다른 주체에서 일부 중복적인 개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SPC 등의 설립을 통해 서로 통합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결론 지었다.

숨가쁘게 진행된 발표자의 발제가 끝나자 자문위원단의 토론이 이어졌다. 신혜경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별로 없다. 2003년 8월 구역 지정 이후 별반 추진된 성과가 없는

것은 제도적으로 매우 많은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므로 적극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Market Force 사장인 제임스 피 루니(James P. Rooney)는 “영종지구의 해안 경관 증개필 지역은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생각된다. 개필은 보기에 안 좋고, 냄새까지 나는 좋지 않은 경관 요소라 생각한다. 자연을 활용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대한 전체적인 소감을 밝힌 재정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국의 김의수 국장은 “관할 정부 기관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 회의를 통해 국토도시계획학회에 바라는 바는, 마스터플랜 수립에 있어서 미래 시점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물리적 배치 계획도 중요하지만, 보다 운영적 측면을 보완해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개발·운영될 때 그 청사진에 맞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1 지난 9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 회의장에서 열린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의 개발 전략 국제 자문회의'. 2 환영사를 하고 있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창석 회장. 3 투자 부문의 발표를 맡은 호주의 투자 회사인 Colonial First State의 투자 고문이자, 아시아 시장 분석 담당자인 앤서니 드 프란세스코. 4 계획 부문에서 발표를 담당한 미국 조경·설계 업체인 EDAA의 싱가포르 지사 이사인 스킷트 던. 5 마스터플랜 주제 발표를 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인 최막중 교수. 6 Market Force 사장인 제임스 피루니. 7 중앙일보 신혜경 논설위원.

